

사랑의 깊이를 깨우친 축복의 시간

'사랑'을 주제로 '2015 만민 기관장 교육'이 개최돼 전국 및 해외 23개국에서 참석한 주의 종과 일꾼,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됐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 서 온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응답받는 기도의 향

선한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이 돼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을 수 있다.

"뇌졸중, 뇌출혈을 치료받았어요"

혼수상태에 빠진 외할아버지가 사진 기도로 소생했다는 인도 사무엘 형제와 뇌출혈을 치료받은 박효순 권사 간증.

만민뉴스

제693호 2015년 7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온 영의 흐름 가운데 개최된 ‘2015 만민 기관장 교육’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영의 흐름 가운데 '2015 만민 기관장 교육'이 열렸다. 강사 이재록 목사의 말씀 증거(사진 ①)에 앞서 예능위원회 찬양의소리선교단과 찬양의무용팀이 '성령의 역사'라는 곡으로 특송하자(사진 ③) 교육에 참석한 주의 종과 일꾼, 성도들이 함께 만국기를 흔들며 전 세계 만민 위에 펼쳐지는 성령의 크신 권능의 역사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갈 것을 다짐하며 찬양하고 있다(사진 ②). 사진 ④는 남산교회총연합회 일꾼들.

지난 6월 29일(월)부터 7월 1일(수)까지 우리 교회 남·여선교회총연합회 주최 '2015 만민 기관장 교육'이 '사랑'(요일 4:16)을 주제로 열렸다. 2015년 온 영의 흐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 영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고 마음에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흥천 대명 비발디파크 대강당 다리아몬드홀과 9개 소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교회는 물론 캐나다, 미국, 벨기에,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등 해외 23개국에서 주의 종과 일꾼, 성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 초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차원인 '온 영'(살전 5:23)의 흐름이 펼쳐져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믿음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6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고 주강사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했다.

이 목사는 "온 영의 완성을 이루려면 삼

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고 마음에 채워야 한다."고 전제한 뒤, 첫째 '사랑' 분야에 관해 참 자녀를 얻고자 시작된 인간 역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되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 천지만물의 창조 섭리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했다.

둘째 '공의' 분야에 관해서는 공의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또는 기준으로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어떤 일의 원인을 공의에 대입해 보면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직물의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영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그 안에 담긴 공의의 법칙을 더 정확히 풀어 낼 수 있다고 증거했다.

셋째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뤄야 함'에 관해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의 심판, 7년 환난 중 이삭줍기 구원을 예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섭리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가룟 유다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 2010년부터 영의 흐름, 온 영의 흐름을 만드신 과정을 통해 허락된 목자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전했다.

이어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 온 영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과 공의를 채운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영의 깊은 단계에 이르렀다 해도 더 깊은 선과 사랑을 채우고 온 집에 충성해야 온 영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넷째로 우리 교회 일꾼들의 실례를 들어 믿음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 사랑보다 공의에 치우친 경우는 '의의 틀', 공의보다 사랑에 치우친 경우는 '선의 틀'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또한 사랑과 공의가 모두 결여된 경우와 믿음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끝으로 강사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 사

람이 온전한 이유는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차원이면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조화롭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차원을 이해하고 닮아갈 때 온 영의 열매로 맺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첫째 날 오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인도로 있었던 '성령충만기도회'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교육에 앞서 신속한 믿음 성장을 이뤄 아름다운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회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오전에는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이 더했고 찬양을 통해 변화된 마음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셋째 날에는 물놀이 시간을 가졌다.

말씀과 기도,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에 처할 때라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혹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는 데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했고,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2.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쓰여 있지요.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아 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틔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갤 수 있습니다(히 4:12).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갖가지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3.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집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요. 무엇보다도 기

도는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1대 1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 법대로 응답해 주시므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절박했기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막 10:47).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부르짖어 기도했고(삼상 7:9), 우리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눅 22:44). 이처럼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잡념이나 졸음이 틈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각오로 중심 다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4.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매우 기뻐하시며 자녀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마음과 눈과 귀를 자녀들에게 향하십니다.

시편 69편 30~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때를 따라 찬양을 올려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 떼를 지킬 때나,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항상 찬양을 즐겨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늘 함께하셨습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빛의 권세도 담겨 있어서 그가 수금을 타면 사울을 번뇌케 하던 악신이

몰라졌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거문고 연주를 듣는 중에 감동을 입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렸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선과 사랑, 능력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5.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의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가 바로 이런 제사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간단히 말해 성령의 감동 속에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예배와 같은 공예배든 소모임 중에 드리는 예배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곧 말씀, 기도, 찬양이 모두 들어가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 예배드릴 때 위로부터 내려 주시는 은혜가 임하며 천국 소망과 평안, 희락이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를 삶 속에서 유지하면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해 몸과 마음을 다해 충실히 행함으로 신속히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며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잠 8:17 ; 렘 29:13).

1. 마음 중심에서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 주시지만, 강제로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인생들 편에서 마음 문을 열 때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만나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즐거움, 헛된 정욕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을 만나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응답받는 기도의 향은 어떤 것일까?

기도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이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구하는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다.



선한 기도이다

선과 사랑 자체가 신 하나님께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기도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며 기도하는 목소리와 모습까지 선한 향을 내지만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만큼 악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아내가 남편이나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미련하고 악한 기도라 할 수 있다. 물질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축복을 주시면 건 축헌금도 많이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옆 가게 손님들을 우리 가게로 보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향으로 쌓이지 않으니 하

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어렵다. 또한 낙심해 원망과 슬픔 속에 한탄하는 기도는 선한 기도라고 할 수 없다. 혹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수월하게 축복을 받아 간증하는데 저는 늘 어려운 형편 속에 삽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선하지 않으며 잘못된 고백인지를 깨우쳐야 한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조급함에서 나온 기도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인정받고 축복받으려는 욕심과 시기, 질투에서 나온 기도이다. 마음의 악으로 인해 슬픔과 원망을 쏟아내며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면 그들처럼 행하면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수월하게 축복받고 간증한다고 했는데, 이는 빛 가운데 행하고자 힘쓰고 애써 노력한 결과이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

다. 그리고 자신이 ‘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산다’고 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발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인내하며 노력해 가면 된다. 자신의 변화가 더딘 것은 마음 발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우리 마음에 악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릴 뿐, 하나님을 서운케 할 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 매 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간구를 드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이다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해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는 자신이 기도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웬만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단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라면 녹음된 소리를 반복해 재생하는 것과 다를 없다. 녹음된 소리를 반복해 재생한다고 해서 기도의 향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녹음기를 돌리는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는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 드리는 것이다. 비유 들어, 전기밥솥에 밥을 할 때는 정해진 양의 쌀과 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냄비에 밥을 할 때는 쌀을 불린 정도에 따라 물을 조절해야 하고 불의 세기 기도 조절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처럼 기도할 때

에 습관적으로 늘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다르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된다. 그 기도의 내용과 흐름을 성령이 주관하시니 기도가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다. 가령,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시점에는 어떤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집중적으로 기도할지 성령이 알려 주시니 세세한 내용까지 주관받아 기도할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의 기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천국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또한 교회와 목자를 사랑해 불같은 기도를 올리게

된다.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범죄하는 양 떼를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심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참이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과연 ‘온 집안 충성하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지, 희생하고 섬기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다. 덕

과 사랑이 있는 분이다. 온유하고 겸비해 참으로 사랑할 만하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과 교회와 목자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혼을 사랑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라야 진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이 내 자녀인 것처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다.

7 2015 July
2015.07.05~07.11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1-4
- 지키는 하나님
- 믿음의 분량 16-20
- 축복 4
- 십자가의 도 21-24
- 응답의 공의
- 요한일서 강해 10-16
- 신뢰
- 창세기 강해 98-102
- 지옥 1
- 요한계시록 강해 81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2-6

GCN TV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1 (이수진 목사)
- 때에 맞는 말 (이미영 목사)
- 축복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4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2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7 (김수정 목사)
- 빌라델비아 교회 2 (김승신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9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3
- 옛날 옛적에 13
- English 11
- 즐거운 요리 20
- 내 마음의 찬양 14
- 흥겨운 소리 4
- 창조와 과학 11
- 모두 드려요 31
- 뷰티올라이프 7

해외성회 프로그램

-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1
- 회상 25

GCN HD 채널
kt allehtv 882번

2012년 11월의 일입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나온 한 자매님으로부터 타밀어 만민뉴스와 첸나이 만민교회 창립 8주년 기념행사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11살 때 큰 이모를 따라 잠시 다녔던 곳이라 내심 반가운 마음에 창립 행사에 참석했다가 설교 말씀과 공연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죽음을 앞둔 외할아버지가 사진 기도로 소생하셨습니다!”

사무엘 형제 (21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그 뒤 교회를 다니며 GCN 방송(www.gcnetv.org)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 실황을 함께 드리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대하며 참으로 놀라지만 했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간증수기 타밀어 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를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과 뜨거운 영혼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책자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우치며 신앙을 새롭게 했지요.



이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외할아버지를 통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몸이 쇠약하신 외할아버지(78세)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려 10월 6일에 집으로 모셔왔지요.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은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는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지요.

저는 외할아버지를 위해 작정 기도를 시작했고, 한정희 담임목사님이 만민중앙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한국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목사님에게 외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며 당회장님께 사진 기도를 대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0일,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단 한 번의 사진 기도를 통해 외할아버지는 소생하셨습니다. 가족도 알아보고 식사도 잘하시며, 일어나 앉고 서며 자유롭게 걸어 다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첸나이만민교회에 출석하는 8명의 친척들에게 믿음의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산도시(5세)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손수건 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바른 뒤 치료받는 체험도 했지요.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매일 아침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고, 하나님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을 마신 뒤 학교에 갑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읽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첸나이만민교회 청년으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대학을 졸업한 후 성공한 사업가가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재정적으로 힘이 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죽음의 위기에서 소생한 외할아버지와 화상을 치료받은 조카 산도시(아랫줄 오른쪽), 형과 친척들, 사무엘(맨 뒷줄 왼쪽)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뇌출혈을 권능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박효순 권사 (70세, 1대대 1교구)



지난 3월 중순경, 뜻밖의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의자에 올라가 험광등을 고정시키던 중 의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만 것입니다. 당시 집에 혼자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 깨어났고, 혼미한 상태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은 뒤 정신이 들었지요.

한 주가 지나서야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고 하체에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새벽에 1시간씩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킴 받지 못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충성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온 것들을 깨우치며 회개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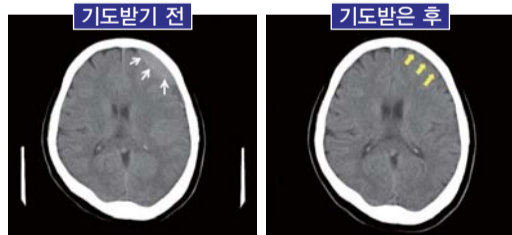
하지만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똑바로 걸을 수 없었으며 입맛도 떨어져 체중이 줄었습니다. 3월 말경, 대교구장님에게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뒤에는 두통과 불안정한 걸음걸이가 호전됐지요.

저는 정확한 검진을 위해 지난 4월 16일, MRI촬영을 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CT촬영도 하게 됐는데 한쪽 뇌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다른 한쪽은 뿌옇게 보였지요. 실핏줄이 터져 피가 고이고 뇌가 눌러 있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단 결과에 충격을 받았지만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보아왔기에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 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일꾼으로서 제가 옳다는 생각 속에 제 뜻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일, 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한 일 등이 떠올라 회개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여선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의 도움으로 산상에 계신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은 뒤 모든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 몸이 예전과 같이 온전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흑여 회개가 안 된 것이 있는지 궁구하던 중, 주의 종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었던 일이 떠올라 회개했지요. 그러자 제 몸은 정상으로 회복됐고, 목자의 재창조 권능의 역사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몸과 마음으로 제가 옳다 하는 것을 깨뜨리고 온유하고 겸비하게,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영육 간에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초생달 모양의 경막하 출혈이 좌측 전두엽 부근에 보이고 있다.

▲ 혈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자매배, 금요절야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